13, April, 2026 Vol. 115

| Bi-Weekly |

신영 ESG

" 전환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ESG 탐방 노트
삼성 SDS

ESG ETF 따라잡기
Nuveen ESG Dividend ETF (NUDV)

ESG News Clipping

ESG essay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전환 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그린 워싱 우려에 막힌 전환 금융…영국, 투자 판단 기준 재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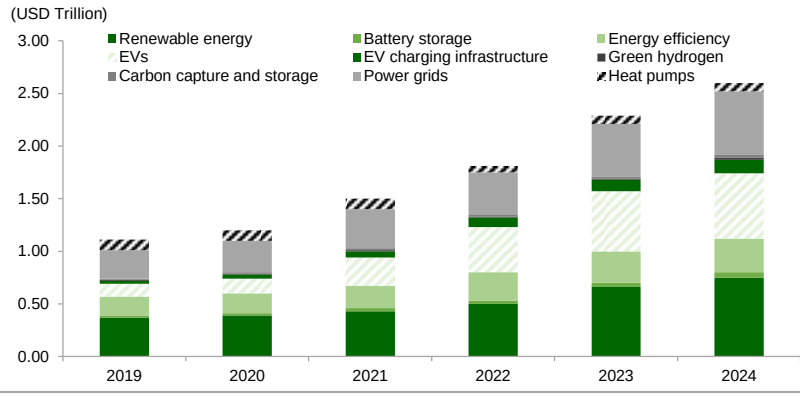
지난 달 영국 전환금융위원회는 전환 금융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함

지난 3월 26일(현지시간) 영국 전환금융위원회(Transition Finance Council, 이후 TFC)는 전환 금융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개함. TFC는 영국 정부와 런던시가 탈탄소화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확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이번에 고배출 산업에 대한 투자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함. 전환 금융(Transition Finance)은 철강·시멘트·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이 저탄소 경제로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설비 전환과 연료 전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금융을 의미함. 녹색 금융이 '친환경 사업' 자체에 초점을 둔다면, 전환 금융은 감축을 전제로 한 탄소 다배출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금융임.

글로벌 전환 금융 시장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강화에 힘입어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함
→2024년 기준 약 2.4조 달러 규모(IRENA)

글로벌 전환 금융 시장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규제 강화에 힘입어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로 성장함.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인 IRENA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에너지 전환을 위한 투자 규모는 사상 최대인 약 2.4조 달러에 이른다고 발표함. IRENA의 분석에 따르면, 1.5℃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연간 약 6.7조 달러 수준의 투자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산됨. 이에 향후 전환 금융의 성장이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됨.

도표 1. 기술별 연간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 추이



자료: IRENA,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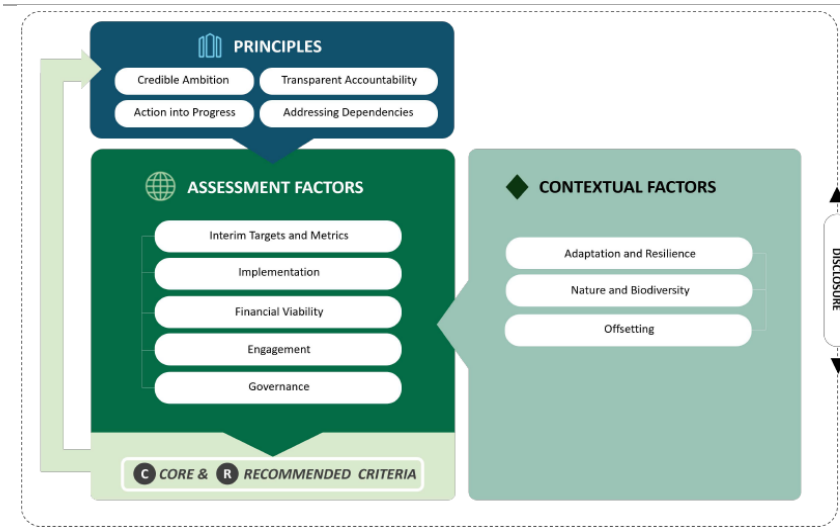
전환 금융의 경우 녹색 금융과 달리 최근에서야 관심이 높아지며 EU, 일본 등 주요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한동안 재생 에너지와 배터리 등 녹색 산업에는 자금이 빠르게 유입됐지만, 전환을 위한 탄소 다배출 산업에는 투

자 자금 유입이 더딘 모습을 보였음. 이는 실제 현장에서는 전환 투자 여부를 판별할 공통 기준이 없다 보니 투자 대상이 탄소 다배출 산업이라는 점에서 그린 워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임. 이에 2023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전환 금융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하여 기업과 금융회사가 EU 택소노미를 활용해 전환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국가가 주도해 전환 국채를 발행하며 전환 금융을 주도 하고 있음. 일본은 지난 2024년 2월 약 8,000억 엔 규모의 세계 최초 기후 전환 국채(Climate Transition Bonds)를 발행했으며, 이후 2026년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약 3.9조 엔의 기후 전환 국채를 발행함.

TFC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안)은 전환 금융 판단 기준을 프로젝트가 아닌 '기업 단위(entity-level)'로 재설계한 게 특징임

이번에 영국 TFC에서 발표한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 초안은 전환 금융 판단 기준을 '기업 단위(entity-level)'로 재설계한 게 특징임. 기존에 주로 사용하던 프로젝트 단위 평가가 아닌 기업 전체의 전환 계획과 실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자금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임. 가이드라인은 4대 핵심 원칙(Principles)과 이를 검증하는 평가 요소(Assessment Factors) 및 세부 기준 (Contextual Factors and Criteria) 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같은 설계는 기업 자금 대부분이 특정 프로젝트가 아닌 일반 사업 목적 자금으로 집행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프로젝트나 단일 설비의 친환경성보다 기업 자체의 전환이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겠다는 아이디어임. 언론에 따르면 스탠다드차타드, 바클레이즈 등 영국 금융기관들은 기업의 전환계획 신뢰성을 평가한 뒤 일반 목적 대출이나 채권 투자에 이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함.

도표 2. TFC의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의 구조



자료: TFC,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국내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국내에서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가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을 발표함. 이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전환 금융으로 인정받는 방식은 두 가지임. 하나는 EU의 개념체계를 벤치마킹한 K-Taxonomy 기반 전환금융으로 녹색금융 인정 기준 중 활동 기준을 충족하고, 나머지 요건을 5년 또는 만기 내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전환 금융으로 인정함. 다른 하나는 일본과 유사한 '업종별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 기반으로 하는 방식임. 정부나 국제기구가 제시한 과학기반 감축 목표를 따르거나, 이에 부합하는 전환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원 대상이 됨. 또한 사후관리 장치도 포함되어 있는데, 전환 금융을 집행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자금이 실제 전환 목적에 사용됐는지, 기업의 감축 계획이 계획대로 이행되는지를 사후 점검해야 함. 감축 이행이 미흡할 경우 해당 자금을 일반 금융으로 전환하거나, 금리 인하·보증료 감면 등 우대 조건을 축소·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또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에는 '탄소고착 리스크(Carbon lock-in Risk)' 조항도 담겨 있는데, 감축 효과가 제한적이거나 화석연료 의존 구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전환 금융 지원 대상 판별에 이를 반영하도록 함.

국내에서는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전환 활동에 대한 정확한 분류체계가 없고, 산업별 감축 경로와 기준이 부족한데다가 성과 평가 체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아 현재는 금융기관이 투자 판단과 사후 책임을 동시에 떠안는 구조임

가이드라인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전환 활동에 대한 정확한 분류가 없어 전환과 녹색 활동의 경계가 모호해 동일한 투자라도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산업별 감축 경로와 기준이 부족해 금융기관이 개별 기업의 전환 타당성을 자체 판단해야 하는 구조임. 또한 전환 금융은 원칙적으로 감축 목표(KPI), 중간 이행경로, 검증 체계가 필수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성과 평가 체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음. 또한 현재는 금융기관별 자율 기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목표 달성에 실패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 방법이 불명확하고 감축 효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현재는 금융기관이 투자 판단과 사후 책임을 동시에 떠안는 구조임. 특히 감축 목표가 사후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판단 기준이 없어 자금을 집행한 금융기관에 그린 워싱 책임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게다가 국내에서는 탄소배출권 가격이 낮아 전환 설비 투자보다 배출권 구매가 경제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되고 있음.

주요국에서는 명확한 기준 정립을 통해 판단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 국내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 기후 금융이 발전해 녹색으로의 전환과 넷제로 달성에 큰 기여를 하기 바램

이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국과 같이 주요국에서는 명확한 기준 정립을 통해 판단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고 있음. 한국의 전환 금융은 아직은 제도적·시장적 기반이 충분히 구축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우리 정부는 향후 주요 다배출 업종의 탄소감축 이행 로드맵과 전환 금융 가이드라인 간 정합성을 점검할 계획임. 이에 빠른 시일 안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기후 금융이 발전해 녹색으로의 전환과 넷 제로 달성에 큰 기여를 하기 바램.

ESG 이벤트 & 신영's View

전기는 시장, 수소는 정책…상용차 탈탄소 '구도 굳었다'

- 에너지 가격 급등 및 유가 변동성 확대에 따라 전기트럭이 디젤 대비 탁월한 연료비 절감 효과와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며 시장 중심의 상용차 탈탄소 전환 가속화
-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트럭을 주류로 설정하고, 수소내연기관(HDPI) 등 수소 기술은 장거리 운송이나 인프라 취약 지역을 보충하는 보완적 기술로 재편하며 기술 다변화 도모

Comments

- 이란 사태 이후 미국 디젤 가격이 거의 50% 급등하는 등 운송 업체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는 중
- 유가 장기화가 반년 이상 지속될 경우 물류 시장에서도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을 것
- 단, EV & 수소 충전 인프라 보급 확대가 동반되어야 운송 분야에서도 친환경차 채택이 증가할 수 있을 것

– Analyst 문용권

미·EU 동시 규제 강화…화장품 기업, '성분·공시' 이중 리스크 직면

- 미국 FDA가 통합 이상사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화장품 부작용 데이터를 실시간 공개하고, API 연동을 통해 제품 리스크 관리의 투명성 및 데이터 분석 기반 강화
- 유럽화학물질청 산하 전문가 위원회가 PFAS의 광범위한 제한 및 성분 표시 의무화를 권고함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환경·보건 규제 대응 및 제품 설계 변경 필요성 증대

Comments

- DA 이상사례 모니터링(AMES) 시스템 도입을 통해 소비자들의 화장품 사용 관련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PFAS 전면 금지에 대해서는 산업계에서 대응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제공해 준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호르무즈 사태로 인한 원재료 가격 상승 기조 속에서 산업계 전반 수익성을 악화를 야기할 수 있는 조치는 단기간에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Analyst 이교석

ISSB, 농업·전력 등 3개 산업 SASB 기준 개정안 제시

- 공간적 발자국 공시 요구 → 공간적 발자국: 기업이 사업을 위해 실제로 점유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면적으로 건물이나 공장의 면적만이 아니라 기업 활동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지역을 포함
- 식품 폐기·토지·공급망 인권까지 공개…기업 공시 부담 확대
- 농산물에 직접 농업 운영 포함
- 전력 및 발전 산업에 에너지원 별 설치와 계획 용량 공시 요구, 사회적 리스크 공시 강화

Comments

- SASB 표준은 기업이 ISSB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IFRS S1)을 적용할 때 참고하는 산업별 공시 기준으로 전 세계 90개 국가 4600여 개 기업이 적용 중
- SASB 기준은 기업의 산업별 공시에 유용하나 일부 내용이 미국 법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제적 정합성이 떨어지는 문제점 존재 → ISSB는 SASB 기준을 국제화하기 위해 지난 2023년 이후 두차례에 걸쳐 개정함. 이번 개정은 지난 해 7월 개정의 후속 작업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시 범위의 재설정을 통한 공시 강화임** → 공시 경계가 '우리 공장' 밖으로 이동

– Analyst 오광영

ESG 탐방노트

통신/소프트웨어 담당 정원석 T.02)2004-9092 / jeong.won-seok1@shinyoung.com

삼성SDS(018260.KS)

매수(TP 210,000원)

ESG 만년 우등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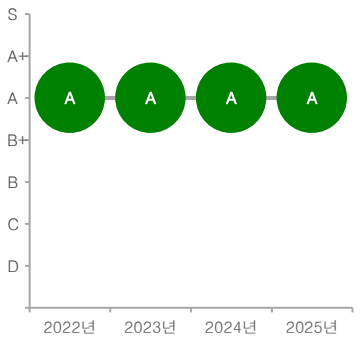
현재주가(4/10) 148,700원

ESG 등급 현황

(평가기관)	ESG	E	S	G
KCGS	A	A	A+	A
Bloomberg	84.10	52.60	97.30	64.90

주: KCGS :S~D 7등급
Bloomberg: 100 만점 기준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6. 4. 10)

시가총액(억원)	115,061
배당수익률(26F,%)	2.1
외국인지분율(%)	21.5
주요주주 지분율(%)	
삼성전자 외 11 인	48.9 %
국민연금공단	8.7 %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8.5	-13.9	-12.3	31.4
KOSPI대비 상대수익률	-13.6	-32.6	-45.9	-45.2

Environment

구 분	단위	2023	2024
온실가스 배출량	천 tCO2eq	5,517	5,536
폐기물 발생량	톤	2,893	4,702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115	74
환경경영 인증	ISO 14001		
환경경영 조직	ESG 위원회		

Social

구 분	단위	2023	2024
LTIFR	%	0.02	0.0
기간제 근로자 비율	%	4.3	4.7
여성 근로자 비율	%	30.6	31.1
사회 공헌지출	억원	-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		

Governance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4 주 전 소집공고
전자투표제	실시
집중투표제	미실시
배당 실시 배당기준일	결산배당
이사회 운영 실적	9 회, 참석률 95.9%

ESG 관련 최신 활동

'삼성SDS "지속성장으로 가는 열쇠 비전···ESG가치 비즈니스 내재화"
(데일리e뉴스, 25.06.11)

-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 증대를 위해 고효율 설비투자 및 액침 냉각 등 신기술 도입 추진 중
- AI윤리, 개인정보 보호 등 IT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과 기술적 해결책 등 디지털 거버넌스 체계 구축

'삼성SDS, 정보보호 투자액 651억...신뢰 구축에 '올인'
(파이낸셜투데이, 25.06.27)

-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책임 관련 전문가인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단독으로 선임해 보안 위협에 대응함
- 당사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훈련, 사내 교육 등 22개의 정보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

'삼성SDS, 수익성·ESG·주주환원 '호평'…'디지털 책임'에도 앞장
(한국경제, 26.03.04)

- 2026 대한민국 밸류업 성과 평과에서 12.1점을 기록해 종합 9위를 기록함
- 자체 구축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시스템인 SGMS를 통해 전 세계 사업장의 스코프 1,2,3 배출량 및 폐기물과 에너지 사용량을 통합 관리함

ESG history

연 혁	내 용
2022년	[ESG] ESG 플랫폼 개발 완료 및 사내 시범 적용
2023년	[E] 수원 데이터센터 노후설비 교체로 에너지 절감(고효율 UPS·변압기·냉각탑)
	[E] 고성능 컴퓨팅(HPC) 전용 동탄 데이터센터 액침냉각 시스템 시범 구축
2024년	[E] 삼성 클라우드 플랫폼(SCP)의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GIS) 인증 취득
	[G] 국제표준 AI 경영시스템(ISO/IEC 42001) 인증 획득
	[S] 건강친화기업 인증 취득 및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25년	[ESG] MSCI ESG 평가 'AA' 등급 획득

2050 Net Zero 환경경영 목표

삼성에스디에스는 IT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전문성을 ESG 경영에 접목하여, 단순한 규범 준수를 넘어 자체 기술력으로 지속가능성을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확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자체 개발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시스템(SGMS)을 통해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량 및 폐기물 등 주요 환경 데이터를 웹 기반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단계에 걸쳐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했다. 데이터센터 운영 측면에서는 에너지 효율(PUE) 향상과 함께 액침냉각 등 차세대 냉각 기술 연구를 추진하며, AI 인프라 확대와 탄소 감축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전략적 접근을 취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노력

삼성SDS는 2024년 국내 최초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 대상은 자사의 생성형 AI 서비스인 FabriX, Brity Copilot, Brity Automation으로, 실제 서비스 단위에서 AI 거버넌스 기준을 충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두 가지 핵심 장치를 마련했다. AI-assisted Red Teaming Framework는 AI가 생성할 수 있는 유해 답변을 사전에 평가하는 자동화 테스트 방법론이며, Safety Filter는 유해한 AI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과 의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AI 안정성에 대한 기술 개발과 인증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AI 윤리를 실제 운영 단에서 내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GMS 주요 기능

자료: 삼성SDS

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 수여식

자료: 삼성S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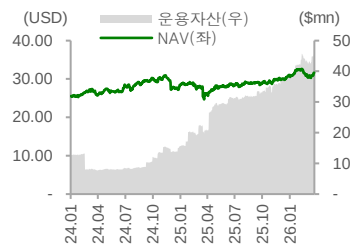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Nuveen ESG Dividend ETF (NUDV)

Key Facts	
상장일	2021/09/27
기초지수	the Nuveen ESG USA High Dividend Index
구성종목수	87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45.7
시장가격(USD)	31.51
NAV(USD)	31.53
총보수(%)	0.26
운용사	NUVEEN

Top Holdings (기준일: 2026.04.08)	
PROCTER & GAMBLE CO	2.73%
COCA COLA CO	2.71%
GOLDMAN SACHS GROUP, INC.	2.49%
MERCK & COMPANY, INC	2.37%
MORGAN STANLEY	2.29%
INTERNATIONAL BUSINESS MA	2.18%
VERIZON COMMUNICATIONS	2.17%
ANALOG DEVICES, INC.	2.11%
DEERE & CO.	2.04%
ABBVIE INC.	1.92%

NAV와 운용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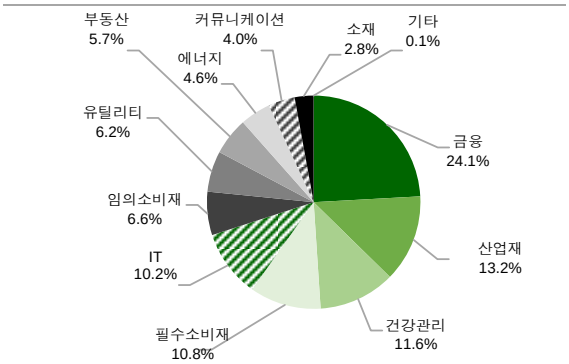
ETF 개요

Nuveen ESG Dividend ETF (NUDV)는 2021년 9월 상장된 ETF로,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고 특정 ESG 기준을 충족하는 미국 상장 대형 및 중형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인 the Nuveen ESG USA High Dividend Index를 추종하는 ETF임. 기초 지수는 먼저 모지수인 MSCI USA Index 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이는 기업들을 선별함. 이후 ESG 기준을 적용하여 주류, 무기, 원자력, 도박 등 논란이 되는 사업에 관련된 기업들을 제외하며 탄소 배출량 기준치를 초과하는 기업 또한 제외됨. 남은 기업들은 ESG 요소에 따라 평가되며, 각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순서대로 포트폴리오에 편입됨. 포트폴리오는 모지수와 유사한 보유 종목 및 성과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다중 요소 최적화 알고리즘에 따라 가중치가 부여됨. 매년 2월부터 분기별로 리밸런싱됨.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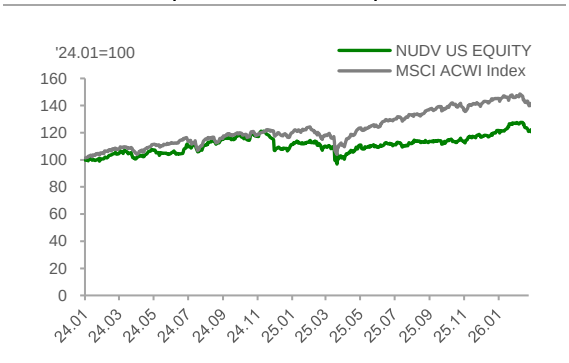
NUDV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대형 또는 중형의 고배당 기업 중 특정 ESG 기준을 통과한 기업으로 구성된 ETF임. 모지수인 MSCI US Index 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과 ESG 특징을 가진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술적 주식 배분 전략을 위해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려는 투자자나 ESG 원칙을 중시하는 투자자의 경우 투자 대안으로 검토해 볼 것을 추천함.

NUDV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08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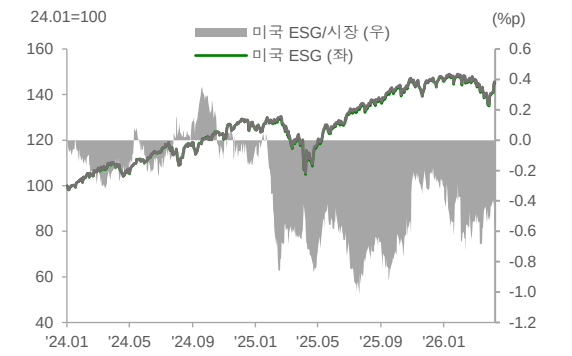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1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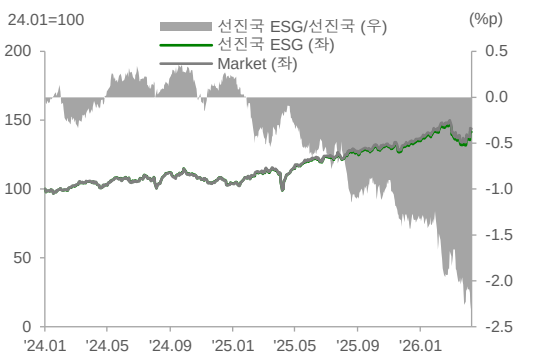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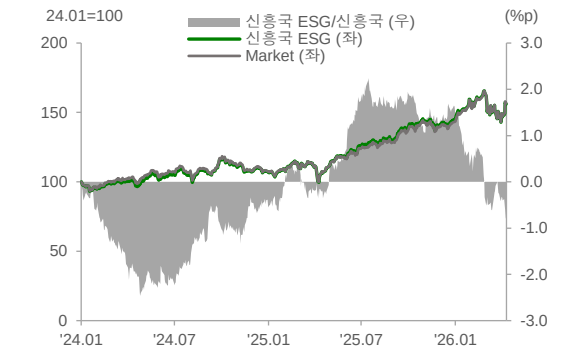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10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10 기준)

신흥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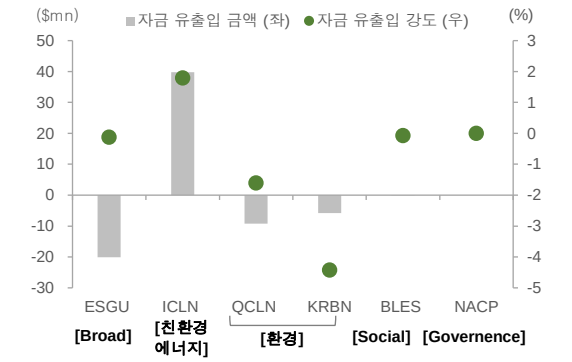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10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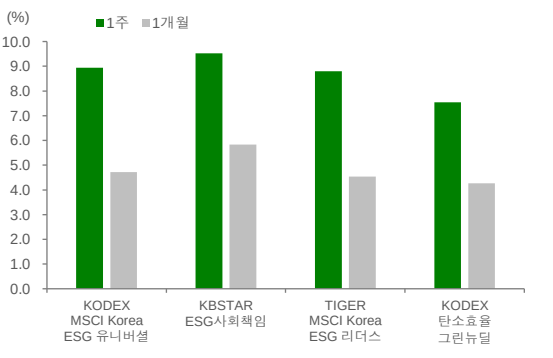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10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10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10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86,834	60	76.9%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13,916	13	12.3%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361	13	5.6%	13.4%
4	Social	5,383	5	4.8%	5.2%
5	Governance	402	3	0.4%	3.1%
6	기타	49	3	0.0%	3.1%
ESG 전체		**112,945**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10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Broad	ESGU	15,571	3.52	0.38	-2.44	3.44	-20	154	-0.1	1.0
	ESGV	11,719	4.02	0.34	-4.17	1.71	121	148	1.0	1.3
	SUSL	1,007	3.30	-0.49	-4.07	3.01	0	0	0.0	0.0
	NULV	1,970	2.97	1.93	1.99	10.51	-2	-50	-0.1	-2.6
	NUSC	1,244	3.83	2.96	0.88	9.90	32	-89	2.5	-7.1
	ESGE	6,302	6.22	2.42	4.89	13.69	-90	197	-1.4	3.1
	ESGD	11,230	4.27	2.60	2.77	10.06	-39	-284	-0.3	-2.5
	EAGG	4,689	0.25	-0.69	-0.74	-1.06	123	315	2.6	6.7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2,215	3.22	1.82	7.52	17.68	40	62	1.8	2.8
	TAN	1,478	-0.09	0.29	9.15	21.44	32	366	2.1	24.7
Environment	QCLN	572	5.56	3.35	1.18	16.08	-9	-16	-1.6	-2.9
	SPYX	2,454	3.84	0.26	-2.68	3.34	11	-19	0.5	-0.8
	CRBN	1,027	4.09	0.79	-0.95	4.79	11	23	1.1	2.2
	KRBN	132	2.82	1.95	-14.67	-10.14	-6	-25	-4.4	-19.2
Social	BLES	140	3.19	1.91	3.61	9.80	0	0	-0.1	-0.1
Governance	SHE	281	3.32	1.57	-1.22	6.02	0	-7	0.0	-2.4
	NACP	64	4.41	2.13	-0.62	9.08	0	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10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6 YTD	1개월	2026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179	8.95	4.72	28.42	71.74	0.0	0.0	0.0	0.0
FOCUS ESG 리더스	120	6.27	5.90	23.20	39.99	0.0	0.0	0.0	0.0
KODEX 200ESG	1,002	8.97	5.92	31.07	77.31	101.1	167.0	10.1	16.7
KBStar ESG 사회책임	3,448	9.52	5.83	31.03	80.66	646.7	1,829.0	18.8	53.1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171	9.22	5.12	29.88	73.20	0.0	0.0	0.0	0.0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153	8.80	4.54	22.47	58.48	-12.9	-12.9	-8.4	-8.4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494	7.55	4.27	29.12	66.79	0.0	0.0	0.0	0.0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183	7.51	4.24	28.92	65.92	0.0	-18.5	0.0	-10.1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182	7.58	4.27	29.07	66.57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6.04.10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 (환경)

(2026.03.30) 토탈에너지스, 2050 넷제로 목표 철회…"EU 기준 전환계획 수립 어려워" - Impact-on

"목표를 낮춘 게 아니라, 설정 자체가 어려운 상황
운영 배출 감축 유지…절대량 대신 '탄소강도' 중심 관리
미국은 화석, 유럽은 재생…투자 전략 이원화"

(2026.03.30) 미·EU 동시 규제 강화…화장품 기업, '성분·공시' 이중 리스크 직면 - Impact-on

"FDA, 통합 플랫폼으로 부작용 데이터 실시간 공개…제품 리스크 가시화
美 FDA, 화장품, 의약품 등의 이상 사례 보고 통합 체계 도입
EU 전문가들, PFAS 광범위 제한 필요성 제시…
유럽 화학물질청 의견 공개
EU 화장품 업계, 옴니버스 VI 둘러싼 "안전기준 완화" 주장 반박"

(2026.03.30) CATL 창업자의 도발, "테슬라·포드·GM 모두 손 벌렸다"...2028년 예상은? - Impact-on

"미국, CATL 배터리 전문성 따라잡기 힘들 것"
포드·GM·테슬라, 모두 CATL에 손을 내밀다
저가형 LFP부터 차세대 나트륨 배터리까지 '기술 초격차'
"정치보다 강한 비즈니스"... 2028년 해빙기 기대

(2026.03.31) 유럽 항공, SAF 목표 달성했지만…'공급 부족'에 다음 규제 충돌- Impact-on

유럽 항공사, SAF 혼합 비율 2% 달성
항공사 반발…eSAF 의무가 갈등 핵심
EU "의무 유지"…정책과 시장 간 간극 확대

(2026.04.01) DHL 프레이트, EU 탄소규제 대응 물류 솔루션 '고그린플러스' 확대 - Impact-on

10%부터 80%까지, 예산에 맞춘 단계별 선택
'장부 및 청구(Book and Claim)' 모델로 물류 혁신
유럽 CSRD 등 강화되는 ESG 규제 정조준

(2026.04.01) 도요타·다임러·볼보, 수소연료전지 동맹 확대…상용차 탈탄소 '속도전' - Impact-on

수소 상용차 기술 '3각 협력' 본격화
"장거리 운송은 수소"…배터리 한계 보완

(2026.04.03) BP 기후공시 후퇴에 주주 반격…주총 앞두고 법정충돌 초읽기 - Impact-on

"기후 책임 희석" vs "국제 기준으로 충분"…주총 앞두고 정면충돌
팔로우 디스, BP의 결의안 거부에 법적 대응 예고
투자자 압박, 셸까지 확산…미국선 법정 다툼으로

S (사회)

(2026.04.03) 아동 SNS 중독 첫 배상 판결… 빅테크 광고 수익구조 규제 전면에 - Impact-on

아동 피해 판결 잇따라… 집단소송 확산 가능성
'알파세대 382조원 시장'… 광고 구조 자체가 쟁점
내부 보고서 알고도 방치… 수익 모델 정면 겨냥

G (지배구조)

(2026.03.30) KT 박윤영號, 조직 대수술 착수…'리더십 공백' 해소 주목 - ESG경제

외부인사 정리·계열사 구조재편 동시 진행…조직 슬림화 단행
외부 출신 고위 임원 대대적 물갈이…내부 인재 중심 재배치
비대해진 경영지원부문 폐지…법무·구매·홍보 대표 직속 전환
해킹사태 신뢰 복원·정성호 장관 '동문 인연' 꼬리표 떼기 과제

(2026.03.31) 독일 토제로, 폐배터리서 리튬 회수…유럽 '재활용 공급망' 전환 시동 - Impact-on

"폐배터리에서 리튬 회수…재활용 공급망 전환 본격화
EU 원자재 전략과 결합…중국 의존 구조 흔든다"

정책 ESG 뉴스

ESG

(2026.03.30) ISSB, 공시 범위 '공급망·생태계·인권'까지 확장…SASB 기준 개정안 공개 - Impact-on

"식품 폐기·토지·공급망 인권까지 공개…기업 공시 부담 확대
공시 경계, '우리 공장' 밖으로 이동
전력사, 원주민·공급망 리스크까지 공시 대상"

E (환경)

(2026.03.31) 미국, 바이오연료 의무 사상 최대 확대…정유업계·농업계 충돌 - Impact-on

"'사상 최대 의무량'…농가 지원 vs 정유업계 반발
"연료 가격 압박"…정유업계·소비자 부담 우려"

(2026.04.01) 美 에너지부-아마존, '폐의류 · IT기기서 광물 캐기' 손잡는다- Impact-on

의류 폐기물에서 배터리 등급 흑연 추출
트럼프 정부의 '자원 안보' 행보… 10억 달러 자금 지원

(2026.04.01) EU 자동차 라벨지침 문제 제기…T&E, "실주행 데이터 기반해야" - Impact-on

공인값과 실제값의 간극…PHEV는 390% 차이
T&E의 3대 개혁 요구

(2026.04.02) 전기는 시장, 수소는 정책…상용차 탈탄소 '구도 굳었다' - Impact-on

연료비 뛰자 판 뒤집혔다…전기트럭 경제성 '확정'
완성차 전략 재편…수소는 장거리 보완 기술로
중국은 이미 결론…전기는 시장, 수소는 정책

(2026.03.30) 트럼프, 세금으로 해상풍력 포기 유도…1조4000억원 환급 - Impact-on

환급 조건으로 화석연료 투자 전환 명시
판결기금 전용 논란…법적 근거 불확실
환급 요구 확산 가능성…잔여 임대액 7조5000억원

(2026.03.31) 인도 기업법 개정…규제완화로 외국인 투자 유치 겨냥 - ESG경제

경미 위반 비범죄화, 벌금 중심 제재 체계 전환 및 적용 확대
소기업 기준 상향·M&A 승인 요건 완화 등 기업 구조 유연화 추진
전자문서·비대면 주총 도입 등 기업 행정 절차 디지털 전환 확대

(2026.04.06) 미국, 물 속 미세플라스틱 첫 규제 후보군 편입…기준 설정 착수 - Impact-on

CCL 등재, 규제 절차의 출발점
환경 넘어 보건으로…미세플라스틱 대응 범위 확대
규제 트랙은 열렸다…기준 설정까지는 시간 필요

(2026.04.07) 호주, 탄소관리 기술에 최대 700만달러 지원…실증 단계로 확대 - Impact-on

실증 중심으로 전환…보조금 지원 본격화
탄소 감축 어려운 산업 배출에 초점….자연 생태계 활용 방식은 제외

S (사회)

(2026.04.06) "전쟁이 만든 초과이익 환수해야"… EU 5개국 '횡재세' 꺼냈다 - Impact-on

"전쟁 수혜 기업이 공공 부담 나눠야"…5개국, EU에 공동 서한
2022년 모델 재가동…가격 통제에서 이익 환수로
업계 반발 속 설계 공백…공급 불안·규제 리스크 동시 확대

일반 ESG 뉴스

ESG

(2026.03.31) 지방선거 앞두고 ESG 정책 검증 본격화…KoSIF, 7개 정당에 질의서 - ESG경제

지자체 '행정 영향력' 활용한 기후·재생에너지 정책 도입 여부 질의
공공기관 ESG 공시·공공조달 기후정보 도입 등 5대 과제 제시
5대 과제에 대한 정당별 찬반·이행계획 공개 예정

E (환경)

(2026.03.30) CO2로 석유 원료 일부 대체…中서 탄소 기반 폴리올 상업 생산 - Impact-on

플라스틱 원료에 CO2 투입…탄소 30% 줄이면서 성능 유지
기술은 영국, 생산은 중국…라이선스 기반 확산 구조

(2026.04.07) 배터리 여권 D-10개월…세계 최초 볼보도 '공급망 추적' 미완성 - Impact-on

원재료 채굴 단계는 여권에서 빠져
공통 계산 기준도, 표준 플랫폼도 없다
데이터는 있어도 공유되지 않는다

(2026.03.31) "ESG 지속가능성 공시, 인증 의무화 동시 시행해야" - ESG경제

KOSRA, 금융위원회에 ESG공시 의무화 의견서 제출
"28년 공시 시작과 스코프3 유예 적절…문제는 인증"
거래소공시 선행 찬성…통합 데이터 플랫폼 구축해야

(2026.03.31) AI 충격에 무너진 소프트웨어…사모자본, 'HALO 자산'으로 이동 - Impact-on

하이테크 시대가 가고 '중자산'이 온다?
'HALO' 테마의 부상…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근육에 투자"
자산 경량화 끝났다…투자 기준, '물리 자산'으로 이동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안보 수요… 사모 자본의 '테라 퍼마' 찾기

(2026.03.31) 주택가 데이터센터 갈등 확산…건축법 뒤에 숨은 지자체가 '주범' - ESG경제

데이터센터도 수도권집중 심화…73% 차지, 주거지로 파고들어 갈등 증폭
환경영향 규제없고, 건축법만으로 인허가 남발…허술한 법을 방패막이로
안양시 협약형 가이드라인 선례…행정가이드라인이나 조례 통한 개선 시사
DC밀집도 높은 지자체부터 환경기준지침, 입지제한규정 등 마련 노력해야

(2026.04.01) PFAS 리스크, 1만5000건 소송·25조 배상…소송에서 '상시 비용'으로 굳는다 - Impact-on

사용 이력까지 소송 확산…기업가치 최대 10% 리스크
3M·케무어스 합의금만 수십조원…기업 절반 '고위험 구간'
'사용 이력'만으로 소송…신발·화장품까지 번졌다
소송에서 규제 비용으로…기업가치 모델 재편 불가피

S (사회)

(2026.04.02) 이란 전쟁, 석유화학 흔들자 식품까지 번졌다… 포장비 최대 20% 상승 - Impact-on

PET 원료 공급 차질… 나프타 의존 구조가 변수
불가항력 선언 잇따라… 아시아·유럽 가격 상승
"마트 진열대까지 영향"… 포장비 최대 20% 상승 전망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 **중 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20260331)	매수 : 88.13%	중립 : 10.63%	매도 : 1.25%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삼성에스디에스	-	-	-	-	-	-	-	-

삼성에스디에스 :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평균주가	최고(저) 주가
2026-04-13	매수	210000		
2025-10-22	매수	210000		
2025-07-03	매수	200000	-19.09	-6.30
2025-01-08	매수	180000	-27.65	7.50
2024-11-21	매수	200000	-31.57	-24.25